

애드 미놀리티

Geometries of the Forest

2023.06.22 – 2023.08.20

페레스프로젝트 서울

페레스프로젝트는 애드 미놀리티가 갤러리와 함께하는 세 번째 개인전이자 서울 공간에서 여는 첫 번째 개인전인 <<Geometries of the Forest>>를 개최한다.

버섯 뿌리처럼 보이는 한 가닥의 실을 따라가면, 우리는 땅 밑에서 살아 숨쉬는 또다른 세계에 이르게 된다. 숲을 이루는 땅 아래 존재하는, 균류가 촘촘하게 얽힌 군사체와 나무뿌리들이 만나면서 형성된 방대한 크기의 그물망에서는 버섯갓과 버섯대들이 널리 퍼져 나가고 나무껍질을 기어오르며 번식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숲의 순환계이다. 이 순환계는 수 마일에 걸쳐 퍼져 있으며, 아주 먼 거리에서도 나무와 곤충 및 다른 수많은 생물들이 서로 연결되고 영양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Geometries of the Forest>>에서 애드 미놀리티는 이러한 생태적 이미지를 자신의 기하학적 추상에 병합해 관계적 세계(relational world)를 묘사한다. 종종 불규칙한 모양을 띠는 캔버스 속 장난스럽고 풍부한 색채는 각기 다른 정밀한 기하학적 형태와 엇갈리며 쉽게 범주화되지 않는 더 큰 층을 창조한다. 바로 이 모호함에, 정체성에 대한 규범적인 개념에 의문을 던지는 미놀리티의 의도가 녹아 있다. 미놀리티의 작업은 모든 생물과 무생물에 내재하는 상호의존성을 설명하기 위해 정체성에 대한 전통적인 통념의 수정을 주장한 철학자 도나 해러웨이(Donna Haraway)의 글에 기반한다. 해러웨이는 지구의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반려종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사이보그 선언(A Cyborg Manifesto)』(1985)에서 유기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를 통합한 비유적 존재인 탈-인간 사이보그의 개념을 환기시킨다. 미놀리티의 회화는 이러한 개념을 시각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작품들은 마치 생태계처럼 복합적인 구조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각각의 모양들로 구성된다. <Magic dust>(2023)에서 애벌레는 버섯갓 위에 앉아있는데, 타원형의 입에서 파충류의 노란 혀바닥 혹은 물담배 관처럼 보이는 것이 튀어나오고 있다. 캔버스 왼편의 파란 버섯은 애벌레의 몸통으로서도 가능하며, 그 오른편에는 그 형상의 반전된 이미지가 노란색과 흰색으로 채색되어 있다. 이는 루이스 캐럴(Lewis Carroll)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Alice in Wonderland)』(1865) 중 한 장면을 재구성한 것이다. 미놀리티는 어린이 문학, 장난감, 만화에서 사용되는 상징성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어덜티즘(adultism, 어른이라는 이유로 어린이, 청소년에게 특권, 권력을 행사하는 것)의 문제, 그리고 어덜티즘이 성별(gender)에 대한 이해와 결부되는 지점에 관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아이들의 문학은 풍부한 생태적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어린 소녀들은 숲 속을 헤매고, 마력을 가진 상상 속 동물들이 버섯과 나무 속에 그들의 집을 지어준다. 미놀리티는 이러한 이미지들을 서로 다른 종 사이의 구분을 흐리게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해체하는 기하학으로 매끄럽게 변환시켰다. 작가는 이러한 방법으로 젊은 세대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어린이들을 정체성과 성별에 대한 규범적인 시각으로 규정하는 조직적인 편견을 폭로하고 바로잡는다. <Mariposa>(2023)에서 미놀리티는 한 마리의 나비를 그린다. 우리는 나비의 움직이는 날개에서 브래들리 인형(Bradley Doll)의 특징인 만화같이 동그란 눈을 본다. 속눈썹은 뚜렷하고 무게감이 있다. 빛이 표면에서 반사됨에 따라 반짝이는 눈은 흐릿함과 망각을 암시한다. 꽃 모자를 쓰고 여러 겹의 가운을 걸친 전형적인 브래들리 인형은 60년대와 70년대 한국과 일본 전역에서 제작되었다. 이 성별의 특징이 명확한 이미지는 성별 너머의 것을 건드리는 기하학적 추상의 바다 가운데서 표류한다. 미놀리티의 정밀한 형태를 배경으로, 인형의 눈은 여성성과 소녀시기를 지속해서 깎아내렸을 묘사에 대한 모순적인 상징이 된다.

둥근 포자 형태의 <microdose>(2023)는 서로 대조되는 분홍색과 파란색의 파스텔 톤 색채들로 칠해져 성별 규범을 따르지 않는 시각적 영역을 구현한다. 작업은 버섯이 지닌 약효와 더불어 인간의 정신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향정신적 힘을 언급하며, 식물성 의학의 전통을 존중하던 원주민 공동체의 파괴와 함께 사라진 지식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와 같은 언급은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 사회 일부의 힘을 앗아가는 도식인 어덜티즘과, 직관적이고 덜 정의하는 지식 체계를 가진 공동체를 억압하고 또 후원하면서 젊음과 관련된 측면들을 표현해온 우리 자신과의 교집합을 생각해보게 한다.

《Geometries of the Forest》에서 미놀리티는 이번 가을 독일의 주요 예술 기관과 함께 진행할, 지하 전시 공간을 버섯들이 자라나는 동굴로 변화시키는 프로젝트의 중심이 될 새로운 개념을 최초로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숲 속에 있는 버섯들의 네트워크처럼, 정체성에 대한 규범적인 생각을 해체하는 공동의 체계 속 전형적인 대조적 요소들을 한데 모음으로써, 모든 존재들의 상호연결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포용적 공간을 조성한다.

이번 전시는 애드 미놀리티가 페레스프로젝트와 함께하는 세 번째 개인전이자 서울 공간에서 여는 첫 번째 개인전이다. 미놀리티의 작업은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세계적인 수많은 미술관 및 기관에서 개인전을 통해 소개되고 있다. 최근 영국 테이트 세인트아이브스 미술관(Tate St Ives)에서의 《Biosfera Peluche》(2022), 프랑스 투르의 올리비에 드브레 현대예술센터(Centre de Création Contemporaine Olivier Debré, CCCOD)에서의 《play theater》(2021), 리스본 현대미술관(Kunsthalle Lissabon)에서의 《Nave Vermelhe》(2020), 미국 노스애덤스의 매사추세츠 현대미술관(Massachusetts Museum of Contemporary Art, MASS MoCA)에서 이자벨 카소(Isabel Casso)가 기획한 《Fantasías Modulares》(2020), 시카고 현대미술관(Museum of Contemporary Art Chicago)에서 칼라 아세베도 예이츠(Carla Acevedo Yates)가 기획한 《Atrium Project: Ad Minoliti》(2019),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현대미술관(Museo de Arte Moderno de Buenos Aires)에서 카를라 베르베로(Carla Barbero)와 마르코스 크래머(Marcos Krämer)가 기획한 《Soft Museum》(2019) 등의 개인전을 선보였다. 또한 미놀리티는 제58회 베니스 비엔날레(Venice Biennale)와 제13회 광주 비엔날레에 참여하기도 했다. 미놀리티의 작품은 부에노스아이레스 현대미술관(Museo de Arte Moderno de Buenos Aires, MAMBA), 뉴욕의 솔로몬 R. 구겐하임 미술관(Solomon R. Guggenheim Museum), 마이애미의 페레즈 미술관(Pérez Art Museum Miami), 파리의 루이비통 재단 미술관(Fondation Louis Vuitton) 등에 소장되어 있다. 미놀리티는 이번 전시 이후, 독일 쿤스트팰리스 에를랑겐(Kunstpalaus Erlangen)과 부에노스아이레스 카사 델 비센테나리오(Casa del Bicentenario)에서 개인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 및 판매 문의

Kacey E. Cho (kacey@peresprojects.com).

언론 및 미디어 문의

seoul@peresprojects.com 혹은 +82 2 2233 2335